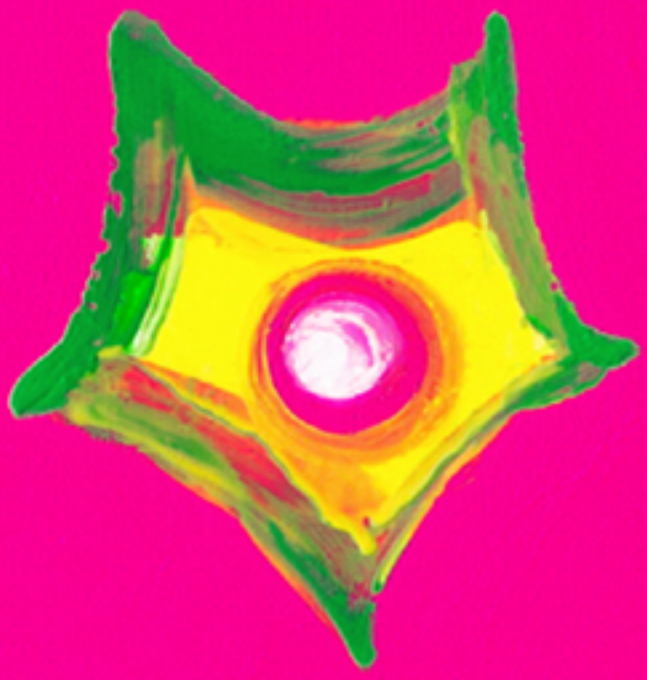
HONGJIYOON STYLE

# 홍지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작가

조사 -
비평 -
연구 사업

hongjiyoon style

# Introduction 들어가며

총괄기획자 김한별

# 들어가며

2022년 봄, 나는 운 좋게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연구 사업을 준비하면서 홍지윤이라는 작가와 만날 기회가 있었다. 나는 그의 미학적 지론이나 예술적 감수성에 몇 가지 이견과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굳이 그 논쟁을 꺼내기보다는 그의 삶과 주변, 요즘엔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물론 90년대 한국 동양화단에 전위적이고 파격적인 모습으로 등장한 홍지윤이란 작가는 이미 그 작업의 사유와 경험적 측면에서 내가 안을 수 없는 세월을 지나왔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작가 홍지윤에 대한 궁금증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동양화에 대한 여러 논쟁과 이견을, 작가를 통해 확인하고 비판하기보다는 홍지윤이라는 작가가 어떻게 동양 화단에서 새로운 장르의 길을 헤쳐왔는지 그만의 독특한 작업관과 실험에 대해 듣고 싶었다.

홍지윤은 그간의 대화에서 "나는 항상 시대의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이해하기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스타일을 만들었고, 나를 보여줬고, 나를 존재시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곤 한다. 홍지윤의 이 말들에는 어떤 예술적인 자기의식이 예견되어 있는듯했다. 이 말을 통해 그는 스스로 자신의 사유가 예술임을 선포했고 이 예술적 개입은 동양 화단에 있어서 뒤샹, 랭보와 같이 보지 못한 부분을 보는 '견자(le voyant)의 미학'으로 '홍지윤 스타일'을 탄생시키지 않았나 빗대어 짐작해 볼 수 있다. 그가 몇십 년간 실천해 온 아방가르드적인 실험들은, 작가 자신을 중심으로 한 사유 세계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과정 안에서 작가는 자신을 투시하고 분리하여 새롭게 조합하고 융합하는 과정을 거쳐 화폭 안으로 끌어들여 왔다. 나에서부터 시작하여 타자를 바라보고, 융합하는 과정을 담아오는 그의 작업 형식은 단편적 세상의 시선과 강박관념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고 다양한 시선으로 그와 그의 주변을 바라보게 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랭보가 그러했듯 새로운 미학적 언어를 만들어냈고, 그것을 풀어내고 섞어내며 세상에 자신을 드러냈다. 이렇게 세상에 나타난 미학적 언어들은 비단 이미지에만 국한되어있지 않고, 언어적 형태를 빌려 드러나기도 하였다. '글/언어'라는 것에 감상자로서만 위치하는 것이 아닌 '예술가 자신'으로 쓰고 말하는 존재로의 '나'를 존재시킴으로써, 작가는 기존 동양미술 화단에 내려오는 전통성과 현대미술 사이의 매개자로서 새롭게 확립된 그의 스타일을 내보였다.

그렇기에 전통성과 현대성이라는 두 가지 흐름이 모두 만나는 동양 화단에서, 매개자로서의 그는 때때로 다른 이들의 논쟁을 불러오기도 했다. 그의 작품을 통해 많은 이들은 서로 상이한 의견들을 주고받았을 것이고, 작가는 그것을 지켜보거나 혹은 자신의 의견을 내보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 안에서 그는 분수처럼 뿜어지는 사유의 미로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사랑하고 기뻐했다. 지금까지도 말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프로젝트로 홍지윤이라는 작가를 알아가면서, 연구진들은 그가 자신의 길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함께 훑어볼 수 있었다. 연구진들이 바라보는 홍지윤에 대한 시각들 또한 그의 작업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조각으로 함께하길 바란다. 작가와 예술에 대한 고민과 사랑으로 빠르게 지나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연구하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함을 전한다.

Director Kim Hanbyul

# Preface

In the spring of 2022, while preparing for a research project run by Arts Council Korea (ARKO), I was fortunate to have had the chance to meet the oriental painting artist Hong Jiyoon. Though I had some questions to ask her, as well as my own opinions on her aesthetic views and artistic sensibility, I did not bother to bring them up. Instead, I opted to talk to her about such topics as how she was doing, things happening in her life, and music she had been listening to at that time. Jiyoon Hong made her debut in the world of Korean oriental painting with her signature unconventional avant-garde style in the 1990s, and she has since expanded the range of her perspectives and experience beyond the bounds of my comprehension in place during her early years. But more importantly, I had been curious about Hong Jiyoon as an artist. I wanted to hear about her unique attitude towards the work process and her approach to experimentation, rather than bringing up criticisms and disagreements about the topic of oriental painting with her.

Hong once said, "I've always been a mad person in our time. I didn't even want somebody who would understand me... That's how I created my own style, revealed myself, and let myself exist." This remark seemed to convey her own artistic self-awareness. Through her remarks, she declared her very thoughts to be art. Presumably, this artistic intervention might have led to the creation of "Hong Jiyoon style" as aesthetics of the seer (le voyant) in the world of oriental painting, which can be compared to the works of Duchamp or Rimbaud. In other words, she embodied an artist who could perceive what others could not. Hong has carried out artistic experiments with an avant-garde style for several decades, creating different perspectives for seeing a new world through the changes in her world of thoughts. In doing so, she went through a process of seeing through herself, separating things inside her from one another, and then combining and fusing them again, with the results of this process eventually being brought onto her canvases. Her work process of seeing through herself first and then others, fusing things together that she has found, must have freed her from the fragmentary perspectives and obsessive ideas of the world. This allowed her to envision a new world and look at herself and her surroundings from a variety of perspectives. In this sense, Hong created new aesthetic languages, as did Rimbaud, and has unraveled and mixed them together, revealing herself to the world. The aesthetic languages presented to the world were not confined to images only, and they were revealed in the borrowed form of language. She did not place herself as just an observer of writing and language, but made herself exist as a being who writes and speaks as herself as an artist. As a mediator between tradition, which has been passed down through generations in the world of oriental painting, and modern art, Hong presented her newly established style.

In the world of oriental painting, where the two streams of tradition and modernity intersect, Hong served as a mediator, and her work would cause conflicts and disagreements among other artists. While many exchanged different opinions about her work, she sometimes would merely watch what was going on, while at other times she would express her own opinions. This allowed her to discover her own way, walking in the maze of thoughts and spurting like a fountain. She loved and rejoiced in the process of finding her own way. She still does and she will continue to do so. Our researchers were able delve into how she had found her own way as they learned about the artist for this project for ARKO. I hope that their perspectives on Hong's work will constitute and remain a piece of the puzzle that would help shape her art world. I would like to thank everyone who studied together with our researchers and participated in the project for the past two years, a time that flew by quickly as we all pondered and revered the artist and her work.

# Artist Statement

### 과거와의 대화

나는 한국경제의 부흥기인 1970년에 서울에서 태어났다. 부지런하고 정직한 사업가 아버지는 대대로 내려온 효자정문을 모시고 꽃나무를 가꾸는 필체 좋은 멋쟁이였다. 미모의 호방한 의상디자이너 어머니는 유능했다. 풍요로운 유년기를 보냈다. 어머니의 의상실, 하얗고 커다란 유리창 너머에 화려한 각종 옷감과 마네킹, 국내외 패션잡지와 화집이 있었다. 화가는 어머니의 꿈이었다.

다섯 살부터 그림을 그렸다. 프랑스의 천주교 재단으로 국제학교와 함께 개설된 성심국민학교는 수녀님이 교장 선생님인 여학교였다. 매주 프랑스 신부님의 미사가 열렸고 백인친구들과 운동회를 했다. 글짓기를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발레를 배우고 수채화로 고딕양식의 교내 벽돌성당과 담쟁이 덩굴, 예수상을 그렸다. 예원학교 미술과에 진학해서 풍경 수채화를 그려서 최고상을 자주 탔고 음악선생님의 영향으로 클래식음악을 접했다. 수채화처럼 물로 그리는 동양화를 전공으로 정해 홍익대학교에 입학했다. 민화문자도를 중심으로 한 [전통 채색화연구]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유럽의 현대미술관을 여행했다. 이후 전통색의 재해석을 주제로 첫 개인전을 했다. 그리고 수묵과 동양화론을 공부하며 작가가 됐다. 아버지의 연고인 독일 레겐스부르그를 중심으로 유럽 각지의 미술관을 찾아다니며 서구미술을 경험했고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전시와 레지던시를 했다.

서른 살 초반, 정신적인 지주이자 분신이었던 어머니를 잃고 동시에 다른 형태의 나를 찾아가게 되었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죽음과 삶, 무거움과 가벼움의 상대적 만남을 뚜렷하게 체득한 성장기의 서사는 작업의 색인이 되었다. 거대 담론으로의 전통, 풍부한 인문적 과거는 동시대, 순간과 많은 시간 대화하게 하였고 시대정신을 의식하는 배경, 근거, 동력으로 구축되었다.

### 퓨전동양화, 아시안 퓨전

어머니를 잃은 시기는 밀레니엄을 맞은 사회변환의 시점이었다. 국가차원의 IT산업의 육성으로 수직구조의 사회가 수평적으로 개편됐다. 나의 작업은 선구적인 디지털 작업을 통해 권위미술에 저항하고 고유의 미술로 전환되었다. 최초의 '수묵영상'작품을 발표했고 삼성, LG, 홍콩의 선훈카이 등 국내외 대기업과의 협업과 강연으로 경계를 확장했다. 아울러 초기 작업의 개념이기도 한 '새로운'. '융합', '쉬운'을 의미하는 비전공자들을 위한 동양화 워크샵 [홍지윤의 퓨전동양화]를 개설했다. 디자인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와의 활발한 교류로 작업의 내용이 확대되었다. '퓨전동양화'는 당시 앞선 인터넷 유저인 디자이너들로부터 대중, 미술계 순으로 알려져 새 패러다임이 되었다.

'퓨전동양화'는 동양화에 기반을 둔 동시대 미술로 다중융합 작업과 협업, 교육활동, 출판 등을 내포한 다원적 형태다. 초기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매체 융합에서 2014년 '아시안 퓨전' 출간 이후 동서고금의 인문과 다중 매체와의 융합으로 확장되고 있다. 대부분 미술관기획전의 대형 설치 작업은 미술관 전시와 미디어파사드 작업과 함께 공공미술을 아우른다. '퓨전 동양화'는 시작한 당시 고유명사에서 현재 보통명사가 되었다.

### 내 이름은 홍 지 윤

내 이름은 넓을 홍洪, 뜻 지志, 둥글 륜侖이다. 작가로 산지 30년이 되는 근래에 글자의 의미와 힘을 알아간다. 이름 한자 한자의 의미를 겨우 알아간다. 철이 나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이 이름이 생긴 대로 살고 있고 살려고 노력한다는 사실도 겨우 알아간다. 이 자각과 관련해 고유한 지점이 있다. 글자와 이름과 존재의 의식에 시지각이 함께 작용하고 시적 감수성으로 이어져 공감각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처럼 작품에서 글자는, 작품은, 의미 전달과 조형기능은 물론 심미안적 서정이 더해져 공감각적으로 구현된다. 이 사유체계는 동양 미학의 '서화일체','시서화 삼절'의 개념과 '선비문화의 풍류' 그리고 동시대 미술의 담론과 형식을 통해 드러난다. 자작시에 기반한 글씨, 회화, 비디오, 오브제, 사진 등이 하나로 연관된 설치작품이 된다.

삶과 작업의 의미, 방식이 하나가 되어간다. 미술을 통해 '둥근 정신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사십 대 초반 2013년 퓨전동양화의 학문적 근거를 담론화 하기 위해 동양미학과 현대미술의 담론을 병치하여 「자작시를 통한 다원적 융합과 현대 동양화의 변용」을 제목으로 박사논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해 2014년 서울문화재단 지원으로 퓨전동양화의 전개와 진보를제시한『아시안 퓨전』을 출간했고 2022년부터 연구자들에 의해 본 프로젝트가 지속되어왔다.

### 이것은 꽃이 아니다. 이것은 동양화가 아니다.

작업의 내용과 개념의 상징인 '색동꽃'의 형상은 여러 색의 꽃잎이 모인 둥근 한 송이 꽃이다. 중심을 잡고 둥글게 모아야 꽃의 모양이 된다. 어떻게 중심을 잡을 것인가. 무엇으로 둥글게 모을 것인가. 이 질문과 답이 작업의 개념이다. 중심에 동양의 정신과 형식을 두었다. 정신은 '노자'적 '은유, 반증, 역설'의 방식이다. 형식은 '시서화'와 '지필묵'이다. 둥글게 모을 여러 색의 꽃잎들은 삶, 사랑, 시간과 음유, 낭만, 환상. 동양의 우주인 '오방색' 또는 이를 미디어의 색으로 재해석한 '형광색'. 그리고 '동시대 다중매체' 등이다. 이렇게 이루어진 작업은 곧 동서고금이고 다중융합이다. 모든 것이 둥글게 모이기 위한 것에 걸림이 없다. '원융무애'하다.

한편, 작업의 기반인 대형 회화작품 또는 그래픽 이미지에서 색동꽃은 기호, 문자, 암호이다. 형상과 문자를 대신하기도 하고 패턴 같은 모양속에 숨기도 한다. 따라서 이 꽃은 단지 꽃이 아니다. 이는 나의 동양화가 그렇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러한 반증의 방법론은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아름다운 고전을 통해 문자로 전해져 동시대 나의 시각미술이 되었다. 자작시 자체와 이에 기반한 동서고금의 문학적 요소, 다중매체와의 융합에서 시개념과 융합방식을 구성하는 도구이다. 작업의 독창적 측면은 이 지점이다.
따라서 '퓨전동양화'는 본질로부터 변질된 것이 아니다.
동양적으로 개념화된 실험 동양화이다.
시대정신과 다중매체를 통해 진화했다.

###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이 문장은, 또한 시어는 장자의 '소요유逍遙遊'를 주제로 존재의 사유를 다룬 2003년 수묵영상작품 <큰 새, '붕鵬'>과 2004년 작품 <안녕 날개>의 주제인 자작시의 도입부이다.
작업전개의 초기단계부터 이 질문은 지속되었다. 내 존재와 작업의 천형은 내 안의 여럿인 나와 놀아야 한다는 것이다. '논다'라는 말은 단지 '유희'가 아니다. '작동'한다는 말이다. 지난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존재하기 어렵다. 따라서 무수한 경계들은 불식해야 한다. 때문에 기존의 패러다임 안에서는 불가능하다. 머리와 가슴이 말한다. 시를 지어라. 글씨를 써라. 그림을 그려라. 노래를 불러라. 춤을 춰라. 그리고 놀아라. 끊임없다. 다행히 내가 사는 시간대는 '다원주의'이다. '시공간'이 자유롭다.

### 어디로 갈까?

방향은 정직과 본질. 절망보다 희망. 부정보다 긍정. 어둠보다 밝음이다. 그리고 새로움이다. 이 말은 곧 작업의 원천과 시작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한다. 아울러 동양화와 자연에 대한 것이다. 본질적으로 나와 대상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상대성을 인식하여 하나의 미술 대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융합을 주제로 삼아온 작업의 개념은 삶과 죽음을 분리하지 않고 음과 양을 하나로 인식해온 동양의 순환적 자연관에서 비롯되었다.

작업이 새로울 수 있다는 믿음은 나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유일무이하기 때문이다. 내부와 외부에서 시시각각 발견한 고유 순간을 고유 방식으로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믿음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순환하는 속성과 형태를 가진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지 않아온 동양 정신에서 왔다. 동양인인 나에게 명징하다. 그리고 융합과 순환을 지향하는 미래 미술과 맞닿는다.

본격적인 작업의 본론을 궁금해하며 찾고, 궁극의 시를 짓고, 글씨를 쓴다. 그림을 그린다.
공감각적으로. 순리대로 다시 아이로 돌아갈 때까지.
끝까지 고독하고 낯설게.

눈부시게 화려하고, 불편하고 보드라운 다면체. '홍지윤 스타일'로.
***Cheers!***

# Artist Statement

## A Dialogue with the Past

I was born in Seoul in 1970, during Korea's economic boom. My father, a diligent, honest businessman, was fond of writing and tending to flowering trees. He also managed our family's monumental Gate to Filial Piety. My mother, a beautiful, magnanimous fashion designer, had a highly competent personality. She also had a rich childhood; her fashion room, with its large white glass windows, was filled with colorful fabrics and mannequins, in addition to domestic and foreign fashion magazines and art books. Her dream was to be a painter.

I started drawing at the age of five. As a child, I attended Seongsim Elementary School, an all-girls school with a nun for a principal. The school was funded by a French Catholic foundation in collaboration with an international school. A French priest held mass every week, and I was able to play sports with my white classmates. I also wrote, read books in the library, studied ballet, and painted watercolor paintings of Jesus and the Gothic church, which was made of bricks and covered with ivy and could be seen from the school. I later attended Yewon School's art department, where I often won top prizes for my landscape watercolors. It was there that I was introduced to classical music by my music teacher. I ultimately decided to major in oriental painting, which is painted using water like watercolor and entered Hongik University. After obtaining a master's degree in 'Traditional Color Painting Research' with a focus on folk art letter painting, I traveled to Europe to visit the contemporary art museums there. Later, I held my first solo exhibition with the theme of reinterpreting traditional colors and became a full-time artist while studying ink and oriental painting theory. I was able to experience Western art by visiting museums throughout Europe, particularly in Regensburg, Germany, where my father is from. In addition, I  held exhibitions and residencies in Germany and Italy.

In my early thirties, I lost my mother, who served as my spiritual support and alter ego, simultaneously discovering another form of myself. The narrative of my formative years, when I became acutely aware of the relative encounters between East and West, tradition and modernity, life and death, and heaviness and lightness, became the index of my work. The tradition of holding a grand discourse with the rich humanistic past led me to spend a lot of time in dialogue with my contemporaries and the present moment. This became a framework, a foundation, and a driving force to be conscious of the zeitgeist.

## Fusion Oriental Painting, Asian Fusion

The loss of my mother was a time of social transformation that took place at the turn of the millennium. The fostering of the IT industry at the national level led to the horizontal reorganization of a vertically structured society. My work resisted traditional authority in art, eventually evolving into a unique form of art through my pioneering of digital work. I released my first ink painting video work and expanded my boundaries through collaborations and lectures with large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such as Samsung, LG, and Sun Hung Kai Properties in Hong Kong. In addition, I opened an oriental painting workshop for non-majors, "Hong Jiyoon's Fusion oriental painting." This endeavor encompasses the concepts of 'new,' 'fusion,' and 'easy,' which also reflects the concepts of my early work. The content of this workshop was expanded through active exchanges with various fields, including design. 'Fusion oriental painting' became a new paradigm that was recognized first by designers, who were leading internet users at the time, and then the public and the art world as a whole.

'Fusion oriental painting' is a form of contemporary art based on oriental painting. It is a pluralistic form that implies multidisciplinary work, collaboration, educational activities, and publication. Starting from the early stages of the convergence of analog and digital media, and after publishing 'Asian Fusion' in 2014, the concept has expanded to encompass the convergence of humanities and multimedia across all ages and countries. Most large-scale installations for museum exhibitions incorporate public art alongside museum exhibitions and media facade work.
'Fusion oriental painting,' a term that used to be referred to as a proper noun when it first emerged, has now become a common noun.

## My Name is Hong Jiyoon

My name, Hong Jiyoon, means Broad (洪 Hong), Meaning (志 Ji), and Roundness (侖 Yoon). After 30 years as an artist, I have come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power of words. I have only barely comprehended the meanings behind of the characters that make up my name. I have also barely begun to realize that I have been living and attempting to live up to this name from the time I started to grow up until now.
There is a unique point here in relation to this awareness. It is that the consciousness of letters, names, and beings is accompanied by visionary perception, leading to poetic sensitivity, and thus to synesthesia. In this way, the letter, the work, becomes synesthetically realized, with its transmitting of meanings and sculptural functions, as well as its aesthetic lyricism. This system of thought is evident in the concepts of 'calligraphy and paintings are one,' 'the trinity of poetry, calligraphy, and painting,' from an oriental aesthetic standpoint, as well as in 'art from the culture of scholars' and the discourses and form of contemporary art. Writings, paintings, videos, objects, and photographs based on my own poetry thus become an interconnected installation.

The central meaning and the way of living and working become one. Through the medium of art, I seek to 'spread the round spirit.'
In 2013, when I was in my early forties, I published my doctoral thesis titled 'Plural Combination through Creative Poetry and Variations in Modern Oriental Paintings' where I juxtaposed the discourses of oriental aesthetics and contemporary art with discourse on the academic basis of fusion oriental painting. The following year, in 2014, I published 'Asian Fusion,' which outlined the development and progress of fusion oriental painting with the support of the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This project has been pursued by researchers since 2022.

## This is Not a Flower. This is Not Oriental Painting.

The 'colorful flower,' a symbol of the content and concept of my work, is a round flower with multicolored petals. The petals need to be centered and gathered in a circle to form a flower. How can these petals be centered, and what can be used to gather them with? These questions and the answers to them make up the central concept of my work. At the center are the spirit and form of the East. The spirit embodies Laozi's way of 'metaphor, antithesis, paradox.' The form is made up of 'poetry, calligraphy, and painting' and 'paper, brush, and ink.' The multicolored flower petals to be gathered in a circle represent life, love, time, music, romance, and fantasy. Included are the five cardinal colors, which signify the Eastern cosmos, or 'fluorescent colors,' which are a reinterpretation of them as the colors of the media. Also showcased is the 'contemporary multimedia.'
The work done in this way represents all eras and all nations, in addition to the multiplicity of convergence. There are no barriers to bringing everything together in a rounded way. This is the essence of 'Wonyungmuae (harmonious integration without obstruc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large-scale paintings or graphic images on which my work is based, the colorful flowers serve as symbols, letters, and codes. They take the place of shapes and letters, or they hide within patterned shapes. Therefore, these flowers are not just flowers. This is also true of my oriental paintings. This methodology of antithesis is transmitted in the text through the beautiful classic Tao Te Ching by Laozi and has become a motif of my contemporary visual art. It is a tool that incorporates the concept of poetry and the method of fusion. This fusion is of self-written poetry itself, the literary elements of all times and all countries based on them, and multimedia. This is the original concept of my work. Therefore, 'fusion oriental painting' is not a departure from oriental painting's core essence. It is an experimental form of oriental painting conceptualized orientally. It has evolved through the zeitgeist and multimedia.

## Where Did I Come From?

This question, or quote, is also the introduction to a self-penned poem. The poem is the subject of my 2003 ink painting video work <The Bird, 'Peng(棚)'> and my 2004 work <Hello My Wings> both of which deal with the question of existence in the context of Zhuangzi's 'Free and Easy Wandering (Xiaoyao You, 逍遙遊).' From the very beginning of my artistic development, this question continued to be raised. The nature of my existence and work is to play with myself, the multiple that exists within me. The word 'play' does not merely signify 'entertainment'. It means to work. This is extremely difficult. But otherwise, it would be difficult to exist. Therefore, countless boundaries must be done away with, which is impossible within the existing paradigm. The heart and the mind say: 'Write a poem. Write words. Paint. Sing. Dance. And play'. It goes on. Fortunately, the realm of time in which I live is pluralistic. I am free from the constraints of time and space.

## Where Should I Go?

Direction is honesty and essence. Hope over despair. Positivity over negativity. Light over darkness. And newness.
This concept also refers to the source and beginning of the work. In addition, it relates to oriental painting and nature. In essence, the concept of my work has been based on the theme of fusion, which serves as a way to recognize the individuality of myself and the object, to recognize their relativity, and to realize them as a unified art object. This concept comes from the cyclical nature of the East, which has recognized yin and yang as one without separating life and death.

The belief that my work can be new is because of me. Because I am unique. Because it is a record of a unique moment in time, found inside and outside at various times in a unique way.
This belief comes from an oriental mindset that has never separated humans from nature, with its ever-changing and cyclical properties and forms. This is clear to me as a person who hails from the oriental part of the world. It is also in line with the art of the future, which aims for fusion and circulation.

I explore and search for the essence of my work, compose the ultimate poem, and write. I paint.
Synesthetically. Until I'm back to being a child again within the flow. Lonely and unfamiliar until the end.

I am a dazzlingly colorful, uncomfortable, and soft polyhedron.
'In Hong Jiyoon style.'
***Che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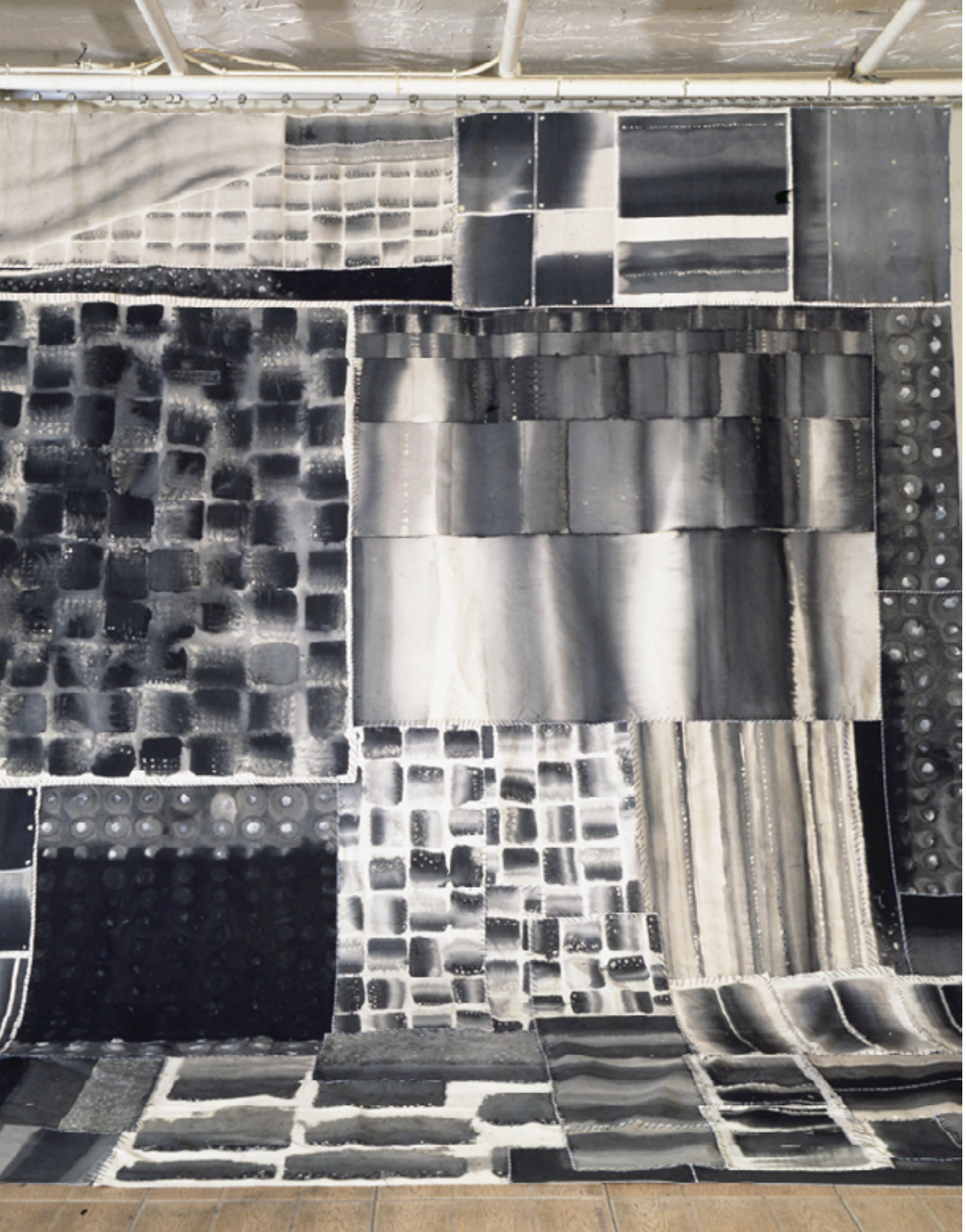
1995 나무 Tree, 밥상 위에 삼베, 한지, 분채, 석채, 먹,
mixed media on dining table, 120×8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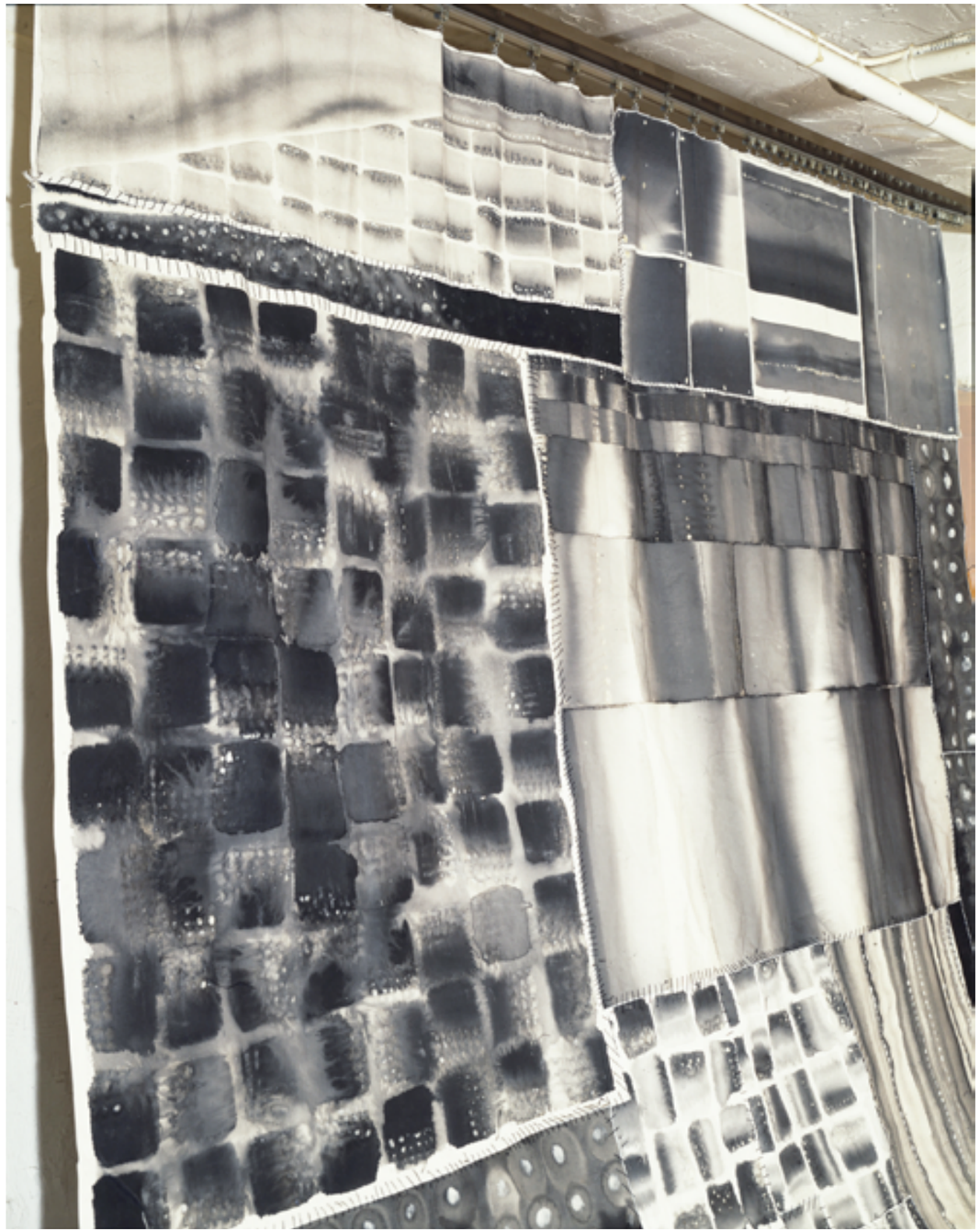


1995 나무-숲 Tree-forest on the dining table, 밥상 위에 삼베, 한지, 분채, 석채, 먹,
ramie fabric, hanji paper, mineral pigments, stone pigments, ink, 605×162cm

1995 나무- 赤 Tree-Redon the dining table, 밥상 위에 삼베, 한지, 분채, 석채, 먹
ramie fabric, hanji paper, mineral pigments, stone pigments, ink, 162x78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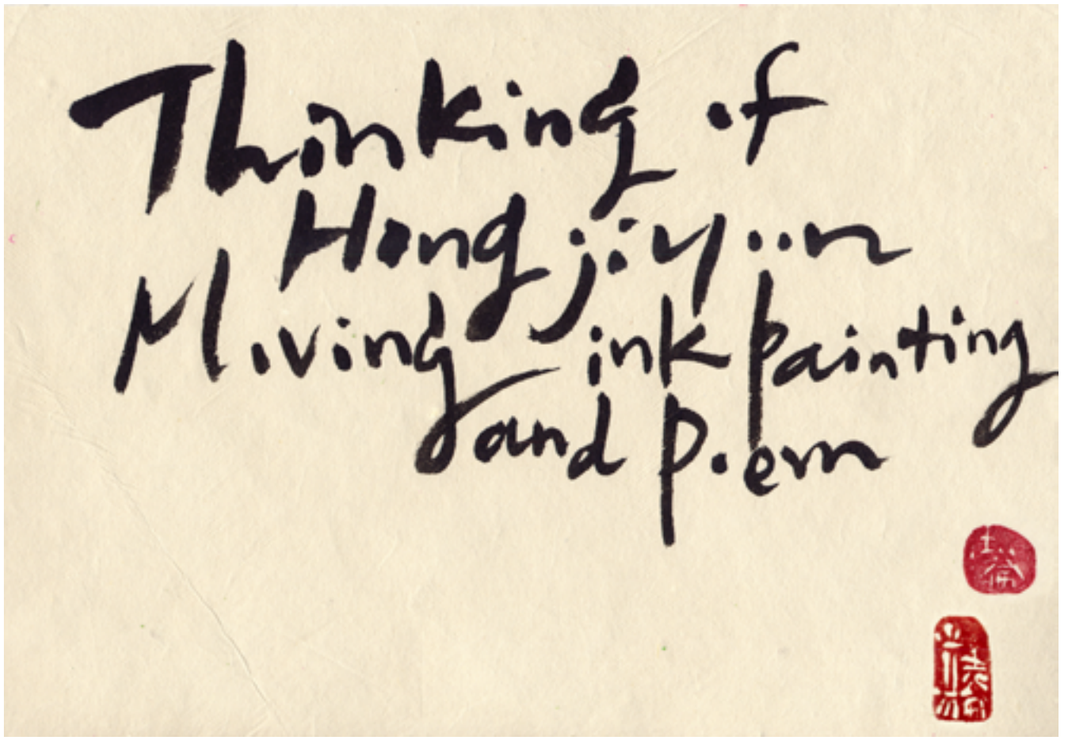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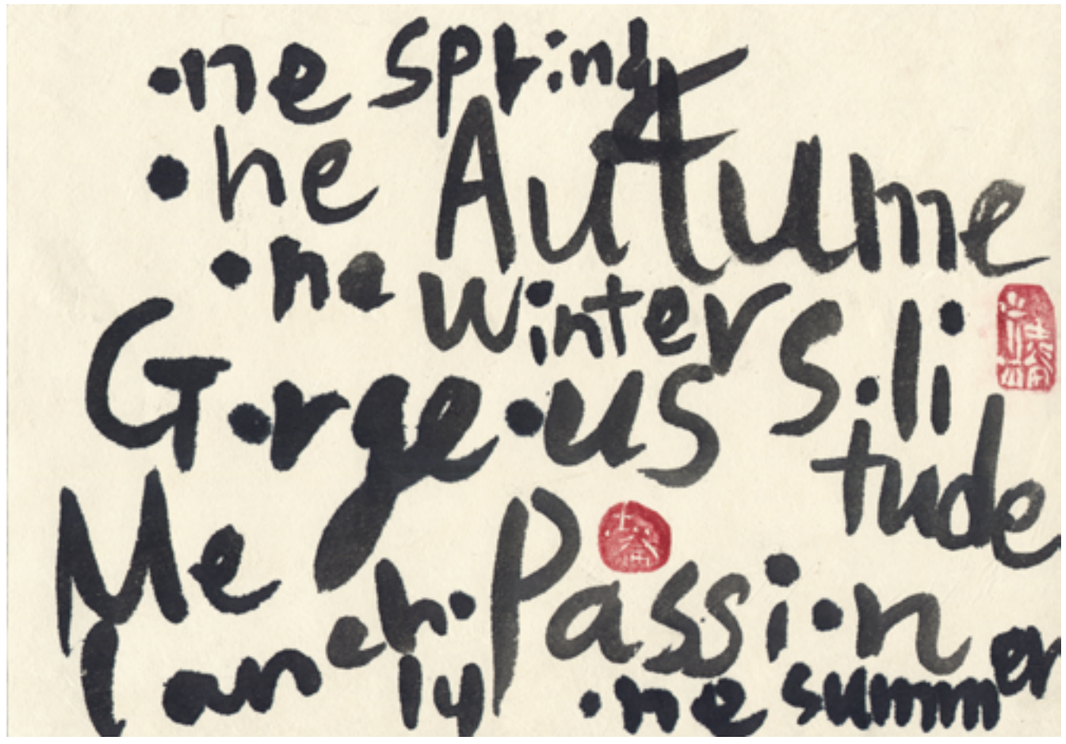
2001 사유의 집 - 어머니를 위하여 My House of Thinking - Dedicated to My Mother, 천에 먹, 방해말, 바느질, 가변설치,
ink & stone powder painted on fabric, sewing, variable installation, 450×300cm





2003 큰새 '붕(鵬)' The Bird,'Peng', 단채널 비디오, 16분 33초 single channel video, 16'33'


Thinking of
Hongjiyun
Moving ink painting
and Poem


One Spring
One Autumn
One Winter
Gorgeous Solitude
Merci Passion
One Summ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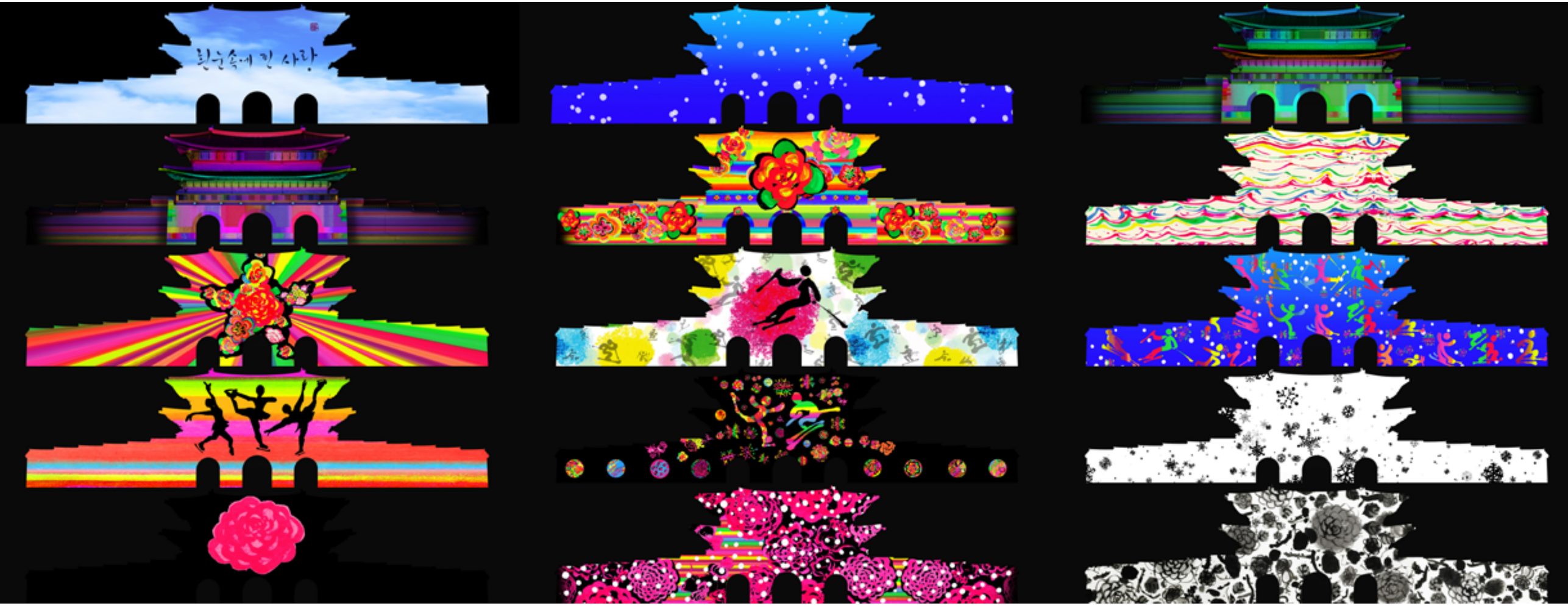


2007 음유, 낭만, 환상 – 원효로와 청파동에서 Minstrel, Romace and Fantasy-At my home town: Wonhyo-Ro & Chungpa-Dong, 혼합 매체, 가변설치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2010 애장곡 My favorite song, 혼합 매체, 가변 설치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2012 어진 바다 – 화려한 경계 An Ocean of Mother Nature – Gorgeous Border, 설치, 퍼포먼스, 단채널 비디오, 5분 32초 installation, performance, single channel video, 5'32"




Starry l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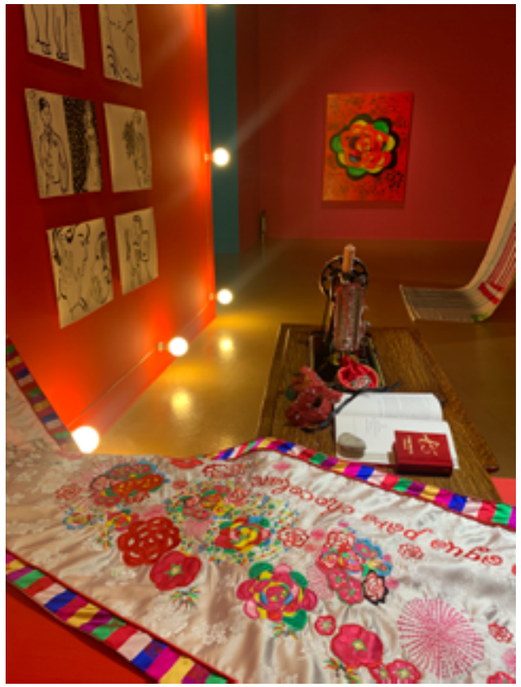
Moon light

Eye light

별빛 달빛 눈빛

2017 빛나는 열정 Brillant Passion, 단채널 비디오, 가변설치, 3분 15초, 평창동계올림픽기념 광화문 미디어 파사드
Single channel video, dimensions variable, 3'15", Gwanghwamun Media Facade Commemorating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2020 분홍인생 粉紅人生 Life was Pink that I knew, 혼합 재료, 가변 설치
mixed media, dimension variable




2022 한글과 OED The Poetic Words Han-geul in Oxford English Dictionary, 회화, 월페이퍼, 비디오 설치, 가변 설치
painting, wallpaper, video installation, dimensions variable

# 홍지윤 洪志侖

b.1970
서울 출생, 서울 거주 및 작업

www.hongjiyoon.com
flower@hongjiyoon.com
@hong.jiyoon



**학력**

1992 홍익대학교 동양화과 학사 졸업 (서울, 한국)
1994 홍익대학교 동양화과 석사 졸업 (서울, 한국)
2013 홍익대학교 동양화과 박사 졸업 (서울, 한국)

**개인전**

2022 제22회 개인전 《물위에서 노래함》, 카린갤러리 (부산, 한국)
2020 제21회 개인전 《홍지윤 展 - 꽃, 구름》 , 서드뮤지움 (서울, 한국)
2019 제20회 개인전 《Solo Show Swank》, 디아트플랜 요갤러리 (서울, 한국)
2018 제19회 개인전 《별빛, 달빛, 눈빛》, 롯데백화점 잠실점 에비뉴엘아트홀 (서울, 한국)
2015 제18회 개인전 《Art15London》, 올림피아 런던 (런던, 영국)
2014 제17회 개인전 《Life is colorful in HK》 랜드마크 노스 (홍콩, 중국)
2013 제16회 개인전 《너에게 꽃을 꽂아줄게》 , 롯데 백화점 갤러리 (일산, 한국)
제15회 개인전 《너에게 꽃을 꽂아줄게》 , 롯데백화점본점 명품관 에비뉴엘 (서울, 한국)
2011 제14회 개인전 《홍지윤 展》, 박사학위 청구전,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한국)
2010 제13회 개인전 《인생 다채》, 표갤러리 (서울, 한국)
2009 제12회 개인전 《활보》 798예술구 갤러리 TN (베이징, 중국)
2008 제11회 개인전 《보헤미안 에디션》 , 갤러리 나우 (서울, 한국)
제10회 개인전 《염색적 향기》, 798예술구 Cup 갤러리 (베이징, 중국)
제9회 개인전 《인생은 아름다워》, 더갤러리 (서울, 한국)
2007 제8회 개인전 《음유 낭만 환상》 , 문화일보갤러리 (서울, 한국)
2005 제7회 개인전 《움직이는 수묵그림과 시 Hongjiyoon's Art meets Digital》, 쿤스트 디렉 갤러리 (레겐스부르그, 독일)
2004 제6회 개인전 《화선지 위의 시간》 , 맥도날드 맥갤러리 (서울, 한국)
2003 제5회 개인전 《움직이는 思惟 : '붕(鵬)' - 홍지윤 수묵,영상 展》 , 한전프라자갤러리 (서울, 한국)
2000 제4회 개인전 《사유思惟의 풍경》 그림시 갤러리 (수원, 한국)
1999 제3회 개인전 《사유思惟의 문》 보다 갤러리 (서울, 한국)
1997 제2회 개인전 《어떤 식물 세 포기에 대한 생각》 ,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한국)
1995 제1회 개인전 《전통 색을 통한 나무의 연구》, 공평아트센터 (서울, 한국)

**단체전**

2022 《한국의 채색화 특별전 : 생의 찬미》,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한국)
《쓰지않은 글씨》, 예술의전당 (서울, 한국)
2021 《황혜홀혜》,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한국)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 목포문화예술회관 (목포, 한국)
2020 《명량미술관》, 성남큐브미술관 (성남, 한국)
《유엔참전용사 기억·감사·평화 展》,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인천, 한국)
《Be here now》, 한벽원미술관 (서울, 한국)
《이응노미술관 미디어파사드 : 이응노, 하얀밤그리고 빛》, 이응노미술관 (대전, 한국)
《ㄱ의순간》,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서울, 한국)
2019 《갤럭시 스튜디오 - 홍지윤》, 익선동 갤럭시 스튜디오 (서울, 한국)
《인천아트플랫폼 10주년 기념 전시 오버드라이브 2009-2019 展》,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한국)
2018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 목포문화예술회관 (목포, 한국)
2017 《평창동계올림픽 미디어 파사드 프로젝트》, 광화문 (서울, 한국)
《봄을 秀놓다》, 단원미술관 (안산, 한국)
《사랑의 묘약-열 개의 방, 세 개의 마음》, 서울미술관 (서울, 한국)
《DNA of Coreanity》, 우양 미술관 (경주, 한국)
2016 《창원조각비엔날레》, 용지호 야외조각공원 (창원, 한국)
《畵畵- 미인도취》,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서울, 한국)
《DNA of Coreanity》, 밀라드 타워전시실 (테헤란, 이란)
베이징 디자인 위크《30 Designers' City Project:Seoul》, 베이징 751 디-파크, (베이징, 중국)
《서울 아트 스테이션 프로젝트: 케이 아티스트 프로젝트》 강남터미널 (서울, 한국)
2015 《코리아 투모로우》, 성곡 미술관 (서울, 한국)
《한국화의 경계, 한국화의 확장》, 문화역 서울 284 (서울, 한국)
《동북아시아 지역사와 시대정신》, 샨시성 미술관 (시안, 중국)
《썸러브》, 신세계갤러리 (서울, 한국)
2014 《정원 展》,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한국)
《해동풍류 최지원》,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 (서울, 한국)
《K-P.O.P. : Korea- Process' Otherness, Play》, 태북당대예술관 (타이페이, 대만)
《아시아 탑 갤러리 호텔 아트 페어 홍콩 특별전》, 마르코폴로호텔 (홍콩, 중국)
《Exhibition of Contemporary Ink Art》 , 프린지클럽 (홍콩, 중국)
2013 《해인아트프로젝트》, 해인사 성보박물관 (합천, 한국)
《암마 엄마!》, 인도 한국문화원 (델리, 인도)
《한글 꽃, 한글 꿈》,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서울, 한국)
《놀이시-작》,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한국)
《향기가 움트다》, 일우재단, 일우스페이스 (서울, 한국)
2012 《서울디자인페스티벌》, 코엑스 (서울, 한국)
《제1회 인천평화미술 프로젝트 - <평화의 바다, 물위의 경계> 展》,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한국)
《See Here, See Hear》, 아트센터 나비, W hotel (서울, 한국)
2011 《이 작가를 추천한다 31 展》, 김달진 미술연구소, 갤러리 숲 (서울, 한국)
《한국화의 재발견》, 성남아트센터 (성남, 한국)
《제1회 인천평화미술 프로젝트 - <분쟁의 바다/화해의 바다> 展》,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한국)
《더 스머프》, 롯데 백화점 갤러리 (서울, 한국)
《화려한 심장》, 한빛 미디어갤러리 (서울, 한국)
2010 《테크놀로지의 명상- Media의 정원》,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한국)
《세계미술의 진주, 동아시아 미술》,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한국)
《한국패션문화페스티벌》,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한국)
《조우》,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한국)
《춘삼월展》,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한국)
《인터날래》, 성곡 미술관 (서울, 한국)
2009 《한글, 디자인展》, 전북도립미술관 (전주, 한국)
《카우 퍼레이드 코리아》, 코엑스 (서울, 한국)
《인천 여성 미술비엔날레 – 가까이 그리고 멀리》,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한국)
《서울 국제 판화사진아트페어 (SIPA)》,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한국)
《텍스트에서 이미지로》 , 수원시미술전시관 (수원, 한국)
《블룸 인 컬러》, 신세계갤러리 (서울, 광주, 한국)
2008 《키아프》, 코엑스 (서울, 한국)
《아트 베이징》, 북경당대예술전시관 (베이징, 중국)
《창원 아시아 미술제》, 성산아트홀 (창원, 한국)
《미미 트래커스》, 송장미술관 (베이징, 중국)
《LED 미디어 파사드 설치 : 인생의 동반자》, 삼성생명 (서울, 한국)
《시월사랑방-카구라자카의 손님》, 소극장 이와토 (도쿄, 일본)
2007 《LG 비주얼 아트 시리즈 - 칼레이도스코프》 , LG 아이 갤러리 (런던, 영국)
《아람미술관 개관전 - 꽃, 그 아름다움에 대하여 展》, 아람미술관 (고양, 한국)
2006 뮌헨 문화부 초청《뉴 탤런트 : 프라이슈필》 , 뮌헨 시청 갤러리 (뮌헨, 독일)

**출판**

2015 『아시안 퓨전』, 아트인포스트 (서울, 한국)
2008 『한반도의 공룡_공룡은 아름다워』, 중앙M&B (서울, 한국)
2003 『화선지 위의 시간』, 주식회사 북스앤피플 (서울, 한국)

---

**작품 소장처**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강남구청
서울 동부지방법원
김달진 미술연구소
헬로뮤지움
독일 뮌헨시 문화부
대만 만다린 오리엔탈호텔
홍콩 Fringe Club 등

---

**TV**

2018 MBC문화사색 후아유
2017 SBS 8시 뉴스
2015 MBN 아름다운TV갤러리
2013, 2010, 2009, 2007 MBC문화사색
2005 KBS 디지털미술관

---

**기금 · 수상**

2014 서울문화재단기금 중진작가상 (서울, 한국)
2012 올해의 주목할 예술가상 수상 (한국예술평론가협회)
2007 서울문화재단기금 (서울, 한국)
2006 뮌헨 문화부 빌라 발드베르타 초청, 기금, 빌라 발드베르타 (뮌헨, 독일)
2005-200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나주, 한국)
2001, 2003 플로렌스 비엔날레《로렌초 일 마니피코 어워드》회화, 혼합매체 부문 수상 (플로렌스, 이탈리아)

---

**레지던시**

2014 홍콩프린지클럽 작가초청, 지원선정 (홍콩, 중국)
2012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프로그램 입주 작가,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한국)
2006 뮌헨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 : 빌라 발드베르타빌라 입주 작가, 빌라 발드베르타 (뮌헨, 독일)
2005 국립현대미술관 고양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 (고양, 한국)

---

**공공예술 · 컬래버레이션**

삼성전자 갤럭시 (서울, 한국)
Landmark North (홍콩, 중국)
아모레퍼시픽 (서울, 한국)
롯데백화점 (서울,한국)
LG 하우시스 (서울,한국)
디자인하우스 (서울,한국)
베이직하우스 (서울,한국)
한국패션산업협회 (서울,한국)
타임스퀘어 (홍콩, 중국)
카우 퍼레이드 (서울,한국)
삼청동 인포센터 (서울,한국)
서울 젊은 국악축제 미술감독 (서울,한국)
연세대학교 해외홍보출판 (서울,한국)
리움 삼성미술관 (서울,한국)
삼성생명 (서울,한국)
LG 생활건강 (서울,한국) 등

# Hong Jiyoon

b.1970
Born in Seoul, Lives and works in Seoul

www.hongjiyoon.com
flower@hongjiyoon.com




**Education**

1992 BA in Korean Painting,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1994 MA in Korean Painting,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2013 PhD in Korean Painting,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

**Selected Solo Exhibition**

2022 The 22nd Solo Exhibition *Auf Dem Wasser Zu Singen*, CARIN Gallery (Busan, Korea)
2020 The 21st Solo Exhibition *Hong Jiyoon - Flower, Cloud*, Third Museum (Seoul, Korea)
2019 The 20th Solo Exhibition *Solo Show Swank*, The Art Plan Jo Gallery (Seoul, Korea)
2018 The 19th Solo Exhibition *Soul beat Heart beat*, Avenuel Art Hall, Lotte Department Store - Jamsil Branch (Seoul, Korea)
2015 The 18th Solo Exhibition *Art15London*, Olympia (London, England)
2014 The 17th Solo Exhibition *Life is colorful in HK*, Landmark north (Hongkong, China)
2013 The 16th Solo Exhibition *Let me be sure to wear some flowers in your mind*, Lotte Gallery (Ilsan, Korea)
The 15th Solo Exhibition *Let me be sure to wear some flowers in your mind*, Lotte Department Store - Avenuel Branch (Seoul, Korea)
2011 The 14th Solo Exhibition *Hong Jiyoon*, Hongik Museum of Art, Hongik University, Degree Show of Korean Painting, (Seoul, Korea)
2010 The 13th Solo Exhibition *Life is colorful*, PYO GALLERY (Seoul, Korea)
2009 The 12th Solo Exhibition *with big stride*, 798 Gallery TN, (Beijing, China)
2008 The 11th Solo Exhibition *Bohemian Edition*, Gallery-Now (Seoul, Korea)
The 10th Solo Exhibition *Dyeing fragrance* (798 Cup gallery, Beijing)
The 9th Solo Exhibition *Life is beautiful*, the gallery (Seoul, Korea)
2007 The 8th Solo Exhibition *Minstrel, Romance, and Fantasy*, Munhwailbo Gallery (Seoul, Korea)
2005 The 7th Solo Exhibition *Moving Ink and Poem Hongjiyoon's Art meets Digital* Kunst-direkt gallery (Regensburg, Germany)
2004 The 6th Solo Exhibition *A time on Hwaseonji* (McGallery, McDonald's, Seoul)
2003 The 5th Solo Exhibition *A moving Contemplation : 'Bung (鵬 Bird)' - Hong Jiyoon Ink and Video*, KEPCO PLAZA (Seoul, Korea)
2000 The 4th Solo Exhibition *A Scenery of Contemplation 思惟*, Gallery Geurimsi, (Seoul, Korea)
1999 The 3rd Solo Exhibition *A Door of Contemplation 思惟*, VODA Gallery (Seoul, Korea)
1997 The 2nd Solo Exhibition *The idea of a Plant's three heads*, Art Center of the Arts and Culture Promotion Agency (Seoul, Korea)
1995 The 1st Solo Exhibition *A Study of Trees through Traditional Colors*, Gongpyeong Art Center (Seoul, Korea)

---

**Selected Invited Exhibition**

2022 *Prayer for Life : Special Exhibition of Korean Polychrome Painting*, MMCA (Gwacheon, Korea)
*Unwritten Character*, Seoul Arts Center Calligraphy Museum (Seoul, Korea)
2021 *Sunset, Sunrise*, Gyeongnam Art Museum (Changwon, Korea)
*International Su-Muk Biennale*, Mokpo Culture & Arts center (Mokpo, Korea)
2020 *Cheerfulness Museum*, Seongnam Cube Art Museum (Seongnam, Korea)
*Exhibition of Remembrance, Gratitude and Peace for UN Veterans of Korean War*,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erminal 1 (Incheon, Korea)
*Be here now*, Hanbyeokwon Art Museum (Seoul, Korea)
*Lee Ungno Museum Media Fasade : Lee Ungno, White Night and Light*, Lee Ungno Museum (Daejeon, Korea)
*The moment of 'ㄱ'*, Seoul Arts Center Calligraphy Museum (Seoul, Korea)
2019 *Galaxy Studio by Hong Jiyoon*, Iksun-Dong Galaxy Studio (Seoul, Korea)
*10th Anniversary Commemorative Exhibition <Overdrive 2009-2019>*,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Korea)
2018 *International Su-Muk Biennale*, Mokpo Culture & Arts center (Mokpo, Korea)

2017 *PyeongChang culture Olympic Gwanghwamun Media Fasade Project*, Gwanghwamun (Seoul, Korea)
*Embroider spring*, Danwon Art Museum (Ansan, Korea)
*Love Potion ; 10 rooms, 3 hearts*, Seoul Museum (Seoul, Korea)
*DNA of Coreanity*, Wooyang Museum of Contemporary Art (Gyeongju, Korea)
2016 *Changwon Sculpture Biennale*, Yonggi Lake Sculpture Park (Changwon, Korea)
*Painting, Paintings: Enraptured Beauty*, Sejong Museum of Art (Seoul, Korea)
*DNA of Coreanity*, Exhibition hall, Milad Tower (Tehran, Iran)
*Beijing Design Week <30 Designers' City Project:Seoul>*, Beijing 751 D-Park, (Beijing, China)
*Seoul Art Station Project : K-artist Project*, Seoul Express Bus Terminal (Seoul, Korea)
2015 *Korea Tomorrow*, Sungkok Art Museum (Seoul, Korea)
*Beyond the Borders*, Culture Station Seoul 284 (Seoul, Korea)
*History and Zeitgeist of Northeast Asia*, Xi' an Art Museum (Xi' an, China)
*Some Love*, Shinsegae gallery (Seoul, Korea)
2014 *Garden*, MMCA (Seoul, Korea)
*Haedongpungryu Choi Chiwon*, Seoul Calligraphy Art Museum (Seoul, Korea)
*K-P.O.P. : Korea- Process' Otherness, Play*, Museum of Contemporary Art Taipei (Taipei, Taiwan)
*Special Exhibition, Asia Top Gallery Hotel Art Fair Hong Kong*, Marco Polo Hotel (Hongkong, China)
*Exhibition of Contemporary Ink Art*, Fringe Club (Hongkong, China)
2013 *Haein Art Project*, Haeinsa museum (Hapcheon, Korea)
*AMMA UMMA!*, India International Centre (Delhi, India)
*Hangeul Flower, Hangeul Dream*,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Seoul, Korea)
*Start-Play*, Hangaram Art Museum of Seoul Arts Center (Seoul, Korea)
*Scent blossom*, Ilwoo Space, Ilwoo Foundation (Seoul, Korea)
2012 *Seoul Design Festival*, Coex (Seoul, Korea)
*The 2nd Incheon Peace Art Project - <Sea of Peace / Limits of the Sea>*,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Korea)
*See Here, See Hear*, W hotel, Art Center Nabi (Seoul, Korea)
2011 *I Recommend this Artist 31*, Kim Daljin Art Research and Consulting, Gallery SUB (Seoul, Korea)
*Rediscovery of Korean Painting*, Seongnam Arts Center (Seongnam, Korea)
*The 1st Incheon Peace Art Project - <Sea of Conflict / Sea of Reconciliation>*,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Korea)
*The smurf*, Lotte Gallery (Seoul, Korea)
*Colorful Heart*, Hanbit Media Gallery (Seoul, Korea)
2010 *Technology Meditation - Media Garden*, Pohang Museum Of Steel Art (Pohang, Korea)
*Pearl of the World Art, East Asia Art*, Hangaram Art Museum of Seoul Arts Center (Seoul, Korea)
*Korea Fashion X Culture Festival*, National Museum of Korea (Seoul, Korea)
*Close encounter*, Jeju Museum of Art (Jeju, Korea)
*March_spring*, Gwangju Museum of Art (Gwangju, Korea)
*Inter-nale*, Sungkok Art Museum (Seoul, Korea)
2009 *Hangeul, Design*, Jeonbuk Museum of Art (Jeonju, Korea)
*Cow Parade Korea,* Coex (Seoul, Korea)
*Incheon Women Artists' Biennale – So Close Yet So Far Away*,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Korea)
*Seoul International Print, Photo Art Fair (SIPA)*, Hangaram Art Museum of Seoul Arts Center (Seoul, Korea)
*from text to image*, Suwon Museum of Art (Suwon, Korea)
*Bloom in Color*, Shinsegae gallery (Seoul, Gwangju, Korea)
2008 *KIAF*, Coex (Seoul, Korea)
*Art Beijing*, National Agricultural Exhibition Center (Beijing, China)
*Changwon Asian Art Festival*, Seongsan Art Hall (Changwon, Korea)
*Meme Trackers*, Song Zhung Art Center (Beijing, China)
*LED Media Fasade installation: A Partner for Life*, Samsung Life Insurance (Seoul, Korea)
*Gagurazaka's Guest in Sarangbang*, Iwato theater, (Tokyo, Japan)
2007 *LG visual arts series - kaleidoscope*, LG-i gallery (London, England)
*Opening Exhibition for Aram Art Gallery - About the Beauty of Flowers*, Aram Art Gallery (Goyang, Korea)
2006 Special Invitation, Munich Culture department *NEW TALENTS : FREISPIEL*, Munich city hall gallery, Munich (Munich, Germany)

**Publication**

2015 *Asian Fusion*, Art in Post (Seoul, Korea)
2008 *Korean saurus is beautiful*, JoongAng M&B (Seoul, Korea)
2003 *Time on Korean paper*, Books & People Co. Ltd (Seoul, Korea)

**Public Collection**

MMCA Art Bank
MMCA Government Art Bank
Hongik Museum of Art
Seoul gangnam-gu office
Seoul Eastern District Court
KIM DALJIN ART RESEARCH AND CONSULTING
Hellomuseum
Munich Culture department
Mandarin Oriental Taipei
Hong Kong Fringe Club etc.

**TV**

2018 MBC Art-Docu Who Are You
2017 SBS 8 NEWS
2015 MBN TV Gallery
2013, 2010, 2009, 2007 MBC The Four Colors of Culture
2005 KBS Digital Museum

**Grant · Award**

2014 Senior Artist Award,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eoul, Korea)
2012 Remarkable artist award of the Year (Korean Art Critics Association)
2007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eoul, Korea)
2006 Special Invitation and Funding, Villa Waldberta, Munich Culture department , Villa Waldberta (Munich, Germany)
2005-2008 Arts Council Korea (Naju, Korea)
2001, 2003 Award Winning, Florence Biennale *The 'Lorenzo il Magnifico' award*, Drawing and mixed media (Florence, Italy)

**Residency**

2014 Fringe Club Artist Invitation (Hongkong, China)
2012 Incheon Art Platform's Residency Program,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Korea)
2006 Villa Waldberta, Munich Artist Residency Program, Villa Waldberta (Munich, Germany)
2005 MMCA Residency Goyang (Goyang, Korea)

**Public Art · Collaboration**

Samsung Electronics Galaxy (Seoul, Korea)
Landmark North (Hong Kong, China)
Amore Pacific (Seoul, Korea)
Lotte Department Store (Seoul, Korea)
LG Hausys (Seoul, Korea)
Design House (Seoul, Korea)
Basic House (Seoul, Korea)
Korea Fashion Industry Association (Seoul, Korea)
Time square (Hong Kong, China)
Cow Parade (Seoul, Korea)
Samcheong-dong Information Center (Seoul, Korea)
Artistic Director, SEOUL NEW KOREA MUSIC FESTIVAL (Seoul, Korea)
Yonsei University Publication Center (Seoul, Korea)
Samsung Museum Leeum (Seoul, Korea)
Samsung Life (Seoul, Korea)
LG Life & Health (Seoul, Korea) etc.

나가며. 책을 만든 사람들

Acknowledgments

# 책임연구자 Principal Researcher

## 고경옥 Ko Kyongok

고경옥은 홍익대학교에서 「대항의 아카이브: 1980-90년대 한국 페미니즘 미술 전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큐레이터, 미술비평가,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랜드문화재단 수석큐레이터(2008-2015), 수원시미술전시관 책임큐레이터(2015-2017), 인천문화재단 《2018 예술정거장 프로젝트》 수석큐레이터(2018), 《제6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6)》 큐레이터(2019), 인천아트아카이브(IAA) 전문연구원(2020-2021), 인천아트플랫폼 운영위원(2023-2025) 등으로 일했다. 저서로는 비평집 『타자들의 삶: 큐레이터 고경옥의 세상 읽기』(2020), 『미학실천: 리슨투더시티 비평집』(공저, 2023)이 있으며, 최근의 논문으로는 「타자의 귀환, 전복적 주체들: 박영숙의 《미친년 프로젝트》(1999-2005)」(2023), 「재현불가능성'의 맥락에서 본 한국전쟁 사진」(2023), 「한국영화에 나타난 '주변부 여성'의 '실종된 인격': <깊은밤 갑자기>(1981)를 중심으로」(2023), 「1990년대 현대미술에 나타난 여성 신체의 문제: 이불(Lee Bul)의 초기 퍼포먼스와 조각을 중심으로」(2022), 「정신분석학으로 바라본 영화 <시네마 천국>: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애도와 멜랑콜리'를 중심으로」(2021) 등이 있다.

After receiving her Ph.D. in Art Studies with a thesis titled “Archives of Protest: A Study on Korean Feminist Art Exhibitions in the 1980s to 1990s” at Hongik University, Ko Kyong-ok has continued her career as a curator, art critic, and researcher. She has worked as a chief curator at E-Land Foundation for Culture & Arts (2008-2015); a senior curator at Suwon Art Center (2015-2017); a chief curator of “2018 Underground, On the Ground” at 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2018); a curator of “6th Anyang Public Art Project (APAP6)” (2019); a professional researcher at Incheon Art Archive (IAA) (2020-2021); and a steering committee member at Incheon Art Platform (2023-2025). In addition, she published critical books, including “Lives of Others: Curator Kyung-ok Ko’s Look into the World (2020)” and “Praxis of Aesthetics: Critical Essays on Listen to the City” (co-authored, 2023). In addition, she recently wrote the following treatises: “The Return of the Other and Agents of Subversion: Young-sook Park’s Mad Women Project (1999-2005)” (2023), “Korean War Photography in the Context of ‘Unrepresentability’” (2023), “‘Missing Person’ by ‘Marginalized Women’ in Korean Movies: Focusing on ”Suddenly, in Dark Night“ (1981)” (2023), “Issues with Women’s Bodies in Contemporary Art in the 1990s: Focusing on Lee Bul’s Initial Performance and Sculpture” (2022), and “A Psychoanalytic View of the Movie Cinema Paradiso: Focusing on ‘Oedipus Complex’ and ‘Mourning and Melancholia’” (2021).

# 연구원 Researcher

## 김정은 Kim Jeongeun

김정은은 2019년 홍익대학교에서 미술평론가 이경성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강의와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용인대학교, 전주대학교, 홍익대학교에서 강의했으며 현대미술사학회에서 출판이사로 활동했다. 2020년도 예술경영지원센터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 김홍주 작가 연구팀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 저서로는 『비평가, 이일 앤솔로지』(공동편저, 미진사, 2013), 『서양미술사전』(공저, 미진사, 2015), 『SeMA Collection 200』(공저, 서울시립미술관, 2015), 『스마트 쉘터 공간: 예술과 공학이 만나다』(공저, 미진사, 2018) 등이 있다. 《지속된 그리고 낯선 그 어떤 곳》(2020.11.6~11.21, 그 어떤 갤러리, 청주), 《진열된 여행 풍경들》(2022.7.19~8.28, 복합문화지구 누에, 전북 완주), 《Beyond Gender: 젠더의 틈》(2023.9.1~9.7, 산울림아트앤크래프트, 여성문화네트워크 주최, 여성신문 주관) 전시에 서문을 기고했다.

Kim Jeong-eun earned her PhD in Art Studies for her research on the art critic Lee Kyeong-seong at Hongik University in 2019. Since earning her degree, she has continued to give lectures and conduct research. In particular, Kim lectured at Yongin University, Jeonju University, and Hongik University, and also served as the director of publication at the Korea Association for History of Modern Art (KAHOMA). In 2020, she worked as a researcher for the Artist Kim Hong-ju Research Team with respect to the “Korean Artist Digital Archiving Project” at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Her publications include “Lee Yil Anthology” (co-compiled, Mijinsa, 2013), “Western Art Dictionary” (co-authored, Mijinsa, 2015), “SeMA Collection 200” (co-authored, Seoul Museum of Art, 2015), and “Smart Shelter Space: A Meeting between Art and Engineering” (co-authored, Mijinsa, 2018). In addition, she wrote articles (preface) for various exhibitions, including “Someplace Continuous and Strange” (Nov 6 to 21, 2020, Geueotteon Gallery, Cheongju), “Travel Landscapes on Display” (Jul 19 to Aug 28, 2022, Open Space Nu-E, Wanju, North Jeolla Province), and “Beyond Gender” (Sept 1 to 7, 2023, Sanwoollim Art and Craft, hosted by Women & Culture in Network, supervised by Women News).

## 강정하 Kang Jeongha

강정하는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아트선재센터 교육팀 인턴(2004), 고려대학교박물관 교육강사(2006~08)로 어린이 대상 교육을 기획·운영하였다. 포스코미술관 큐레이터(2011~17)로 전시·교육·소장품과 관련한 학예업무를 담당한 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2017~20)로 어린이 대상 전시와 청소년·장애인 대상 교육을 기획하였다. 2021년부터 금호미술관 선임 큐레이터로 재직 중이다. 대표 기획전시로 《청춘이 청춘에게 전함》(2017, 포스코미술관), 《예술이 잇는 세상》(2018, 국립현대미술관 어린이미술관), 《신나는 빛깔 마당》(2020,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어떤 삶, 어떤 순간》(2022, 금호미술관), 《마주한 세계: 풍경의 안팎》(2023, 금호미술관) 등이 있다. 미술 현장에서 전시와 교육의 영역을 함께 아우르며 관람자의 '참여'와 '소통'을 키워드로 동시대 미술 담론을 연구하고 있다.

Kang Jeong-ha earned her PhD in Art Studies at Hongik University. She worked as an intern at the Education Team of Art Sonje Center in 2004, as well as served as an education lecturer at Korea University Museum from 2006 to 2008, where she planned and operated education programs for children. She later took charge of curatorial tasks related to exhibitions, education, and collections as a curator of Posco Art Museum from 2011 to 2017. She then organized various exhibitions for children and planned education programs for youth and the disabled as a curatorial researcher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from 2017 to 2020. Since 2021, she has served as a senior curator at Kumho Museum of Art. Her special exhibitions include “Youth Talking to Youth” (2017, Posco Art Museum), “When Life Becomes Art” (2018, Children’s Museum,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Diving into the Color” (2020,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Our Lives, Our Moments” (2022, Kumho Museum of Art), and “Surreal Encounter: Across the Realms” (2023, Kumho Museum of Art). In the field of art, she has consistently built her career on both exhibition and education and has also studied discourses on contemporary art with emphasis placed on viewers’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 총괄기획자 Director

### 김한별 Kim Hanbyul

예술경영과 불어권 아프리카 지역학을 전공하고, 현재 문화예술경영 박사과정에 있다. 문화 기획 그룹을 운영하며 독립큐레이터로 서아프리카 국제 교류 및 협력, 아시아·유럽권 비엔날레와 연구 분야에서 활동하였다. 근래에는, 2013-Infr'Action venezia II 국제퍼포먼스 페스티벌 협력 큐레이터, 2018 세네갈 다카르 비엔날레 한국특별전, 2019-2021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2021강원국제트리엔날레, 2023 카메룬 REPDOUL 국제 시각 예술 페스티벌 등의 큐레이터와 2023 제7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7)의 수석큐레이터로 활동하며, 국제 교류 및 협력 분야의 강의와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는 「이집트 '아랍의 봄'에 나타난 저항예술의 소통적 함의: 푸코의 헤테로토피아적 분석 관점으로」(2023),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의 인식 변화연구」(2023), 「택티컬 어바니즘을 통한 15분 공예도시로의 발전 방안 제안」(2021) 등이 있다.

Kim Hanbyul majored in Arts Management and Francophone African Studies and is currently pursuing a Ph.D. in Art and Culture Management. She currently runs a cultural planning group and has worked as an independent curator in the fields of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West Africa, as well as Asian-European biennials and research. In recent years, she has expanded her role as a cooperative curator of "2013-Infr'Action Venezia II International Performance Art Festival"; a curator of "2018 Special Exhibition of Korea, Dakar Biennale", "Korea International Ceramic Biennale International Competition 2019-2021", "Gangwon Triennales 2021", and "Cameroon REPDOUL International Visual Arts Festival 2023"; and a chief curator of "2023 7th Anyang Public Art Project (APAP7)". Kim has also continued to give lectures and provide research on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Her major research activities include "Communicative Implications of Resistance Art in Egypt's 'Arab Spring' Based on Foucault's Heterotopias" (2023), "A Study on Perception Change of Anyang Public Art Project (APAP) Using Language Network Analysis" (2023), and "Proposal of Development Plans for 15-Minute Craft City through Tactical Urbanism" (2021).

## 프로젝트 보조원 Project Assistant

### 표지수 Pyo Jisu

표지수는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도자예술 교육을 기획하는 문화예술교육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다. 도자예술을 기반으로 정보 약자의 정보 접근성 강화, 수용자 중심의 예술 감상법 등 의 공공의 가치실현을 위한 예술교육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다.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미술관》에서 지역민 대상 생애주기 별 교육을 기획하였으며, 《2023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2023, 경기문화재단) 사업을 통해 예비 문화예술교육기획자 양성 및 세대 별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도자예술을 바탕으로 예술교육의 기초적 의의를 탐구하고, 문화예술 감상의 확장을 위한 참여자 중심 교육에 대한 연구를 실천하고 있다.

Pyo Ji-su graduated from the Graduate School of Arts and Cultural Management, Hongik University, later working as a planner of arts and culture education with a focus on ceramic art. In addition, based on ceramic art, she has studied art education programs in order to better realize public values. This involved extending access to information for disadvantaged groups that have difficulties accessing it, and she has taken part in recipient-centered art appreciation. Specifically, she planned a life cycle-specific education program for local residents at Gyeonggi Museum of Contemporary Ceramic Art, Korea Ceramic Foundation, and trained prospective arts and cultural education planners. She has also planned programs for various age groups through the "2023 On-Site Competency Reinforcement Project for Arts and Culture Education Instructors" (2023,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Pyo has explored the fundamental significance of art education, based on ceramic art, and practiced research on participant-centered education for the expansion of art and cultural appreciation.

### 박수정 Park Soojeong

박수정은 대안적 큐레토리얼의 실천을 고민하는 전시 기획자이며 연구자이다. 홍익대학교 예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미술 현장 내 출판물과 대안 전시에 관심을 두어 동아시아 근현대 실험미술 속 책을 통한 기록과 실험극장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제7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7)》,《강원국제트리엔날레2021》 어시스턴트큐레이터, 《평창비엔날레 2017》 코디네이터로 근무했으며, 《3분의 2,000》(2022, 이천시립박물관)을 공동 기획하였다. 비미래연구회에서《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문기~부조~공공》(2023, 경기문화재단)을 기획하여 공공예술을 통한 사변적 기억의 재구성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최근에는 도서관과 하이드로 페미니즘을 통한 여성 예술인 커뮤니티 생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Park Soo-jeong is an curator and researcher who explores alternative curatorial practices. She received her B.A. in Art Studies at Hongik University and is currently attending graduate school there. With an interest in publications and alternative exhibitions within the art scene, she is currently studying documentation through books and experimental theaters with respect to modern and contemporary experimental art in East Asia. She worked as an assistant curator for "2023 7th Anyang Public Art Project (APAP7)" and "Gangwon Triennale 2021", as well as a coordinator for "Pyeongchang Biennale 2017", and a project manager for "2022 Icheon / 3" (2022, Icheon Municipal Museum). In addition, she organized an project titled "Enter Your Search Term: ?*Moongi~Relief~Public" (2023,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at Be:e Future Research Society, through which she studied the reconstruction of speculative memory by means of public art. In addition, she has recently contributed to creating a community for female artists through libraries and hydrofeminism.

# 2022-2023
# <작가 조사-연구-비평> 지원사업

# 2022-2023
# Artist Research-Study-Critique


| | |
|---|---|
| **총괄기획자** | 김한별 |
| **책임연구자** | 고경옥 |
| **연구자** | 김정은 |
| | 강정하 |
| **외부필진** | 정연심 |
| | 이동국 |
| | 키스 B.와그너 |
| | 함돈균 |
| **원고재게재** | 이선영 |
| | 윤진섭 |
| | 민병직 |
| **보조연구원** | 표지수 |
| | 박수정 |
| **디자인** | 인볼드 스튜디오 |
| **촬영** | 김윤우 |
| **번역** | 이지샘 |

| | |
|---|---|
| **Director** | Kim Hanbyul |
| **principal researcher** | Ko Kyongok |
| **Researcher** | Kim Jeongeun |
| | Kang Jeongha |
| **Invited Researcher** | Chung Yeonshim |
| | Lee Dongguk |
| | Keith B.Wagner |
| | Halm Donkyun |
| **Research Reincorporated** | Lee Sunyoung |
| | Yoon JInsup |
| | Min Byungjic |
| **Project Assistant** | Pyo Jisu |
| | Park Soojeong |
| **Design** | Inbolde studio |
| **Photo** | Kim Yoonwoo |
| **Translation** | Ezisam |

| | |
|---|---|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
| **주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 | 2022-2023 <작가 조사-연구-비평> 지원사업 |
| **발행처** | 비미래연구회 |
| **ISBN** | 979-11-9852209-2 |
| **발행일** | 2023.12.19. |
| | 비매품 |

| | |
|---|---|
| **Host**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 **Organizer** | Arts Council Korea |
| **Publisher** | Be:e Future Research Society |
| **ISBN** | 979-11-9852209-2 |
| **Published date** | 19. Dec. 2023.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작가연비 조사구평


본 연구집에 실린 글과 사진 및 도판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며, 저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prior permission from the artist and authors.



* 이 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2023 <작가 조사-연구-비평>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 This research book was published by the Arts Council Korea as part of the 2022-2023 'Artist Research-Study-Critique' support project.